

장흥군, 재배적합 표고 품종 선발 완료

‘골든시드’ 프로젝트 성과…백화향·산조303호 선발

시험결과 토대로 관내 종균분양업체 등 통한 보급 계획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사장 김성)은 지역적용시험을 통해 우리지역에 재배적합한 표고 국내산품종을 선발 완료하여 앞으로 확대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생물다양성협약(CDB)과 국제신품종보호동맹(UPOV)으로 인해 외국산품을 사용 시 라열티를 지

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라 더욱 의의를 더한다.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장흥지역에 구축한 농가시험포 17개소를 대상으로 19개의 국내산품종에 대해 현장시험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원목재배용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버섯연구센터, 충남대, 경상대와 함께 연구팀을 구성하여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표고 골든시드(GSP, Golden Seed

국내산품종으로 외국산품종에 경쟁력을 갖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험 농가와 연계하여 재배현장에 맞는 매뉴얼을 정립한 후 관내 종균분양업체 등을 통해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제해신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은 “이번 시험에서 선발된 표고버섯 국내산품종이 품질과 생산량 등에서 많은 우수성이 나타나, 앞으로 국내산품종의 자금률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무안군, 전통발효 누룩 제조교육 ‘호응’

가공 및 상품화 통한 농가 소득창출 기대



무안군은 잊혀져가는 전통발효 누룩 제조 기술을 복원,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전통누룩을 활용한 기공과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해 온 전통발효 누룩 활용반 교육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무안군 농산물가공 센터에서 실시해 온 전통발효 누룩 제조교육은 금년에도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달 4일부터 25일 까지 전통누룩의 이해와 활용성, 그리고 누룩 제조방법 등을 익히는 실습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전통발효 누룩을 이용한 전통주, 식초, 고급장류, 소금누룩 등 다양한 제품 제조과정을 직접 실습하고 실제 누룩공장을 운영하는 전문강사의 제조 노하우와 관리방법 등을 공유하고 누룩 발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교육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최근 발효식품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집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발효식품 창업의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효식품에 대한 여러 전문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여수시, 뜨거운 도심
살수차로 열기 식힌다

여수시가 계속되는 폭염 속 살수차를 동원해 도심 온도를 낮춘다. 여수시역은 최근 한낮 최고기온이 31°C를 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5일 시 신불진화 차량 4대와 임차한 16톤 살수차량을 활용해 도로변 물뿌리기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시청료·쌍봉로·홍국로·망마로 등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주택가 주변 등에 작업을 완료하시는 앞으로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 시 수시로 물 뿌리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무더위에 취약한 노약자 등을 위해 재난도우미 128명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재난도우미들은 방문, 전화 등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 폭염에 취약한 노인 보호에 ‘구슬땀’

경로당·경로복지센터·농사현장 특별 관리



완도군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어르신 안전을 위해 경로당 248개소와 경로복지센터 53개소의

냉방시설을 점검하고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해 시설 점검과 어르신 건강을 살피고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폭염 예·경보에 따른 기상 알림서비스 실시로 37명의 독거노

인 생활관리사가 91명의 독거노인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한전·K-water 등 유관기관과 독거노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이란 85명이 3,453명의 독거노인 가정을 매월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군은 무더위 속에서 농사일 등 바깥활동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등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폭염대응 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위급 상황 대응체계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폭염에 흘로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군, 도시민 유치·특산물 홍보 실시

경기도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 종합 상담과 농수특산물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했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2017 K-Farm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 종합상담과 농수특산물 홍보활동 등을 펼쳤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상담·부스를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수도권 도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했다.

또 진도 흥주, 월금, 흑미, 구기자 등 대표 특산물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진도군 부스를 방문한 귀농·귀촌 희망자 124명과 1대 1 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귀농·귀촌을



꿈꿔왔던 수도권 도시민들에게 진도군 귀농·귀촌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상담을 통해 알렸다”며 “진도의 귀농·귀촌 활성화는 물론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등으로 열린 K-Farm 박람회는 “농업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농업테크·스마트농업, 농업 투자·이야템,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년연속 우수축제**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2017. 7. 28. 금 ~ 8. 3. 목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Jeongnamjin Jangheung AquaFestival

7. 30.(토) ~ 8. 3.(목)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강진청자축제장
연계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방문의 해
VISIT GANGJIN 2017. KOREA

2017. 7. 29-8. 4 (7일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청자할인판매] 2017. 7. 28. ~ 8. 6. (10일간)

The 45th Gangjin Celadon Festival
제45회 강진 청자축제
흙, 불 그리고 사람